

#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oor Single Mothers: Buffer Effects of Social Support

김 영 희  
안성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

Kim, You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Ansung National Univ.

### Abstract

Social support may be a crucial aspect in single mothers' adjustment from the loss of spouse. Using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285 widowed or divorced mother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ocial support buffers the deleterious effects of stres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poor single mothers.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is not provided for at a desirable level. After controlling the single mothers' characteristics, stress in daily life, emotional support, job status and child relationship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of them. It was also founded that emotional support buffer the negative effect of stress on depression of single mothers. Therefore, the support programs focused on emotional support are necessary for single mothers to enhance their mental health.

### I. 문제제기

통계청(1992)에 의하면 1990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5%가 여성가구이며, 그 중 약 62%가 편모가족이다. 이들 편모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공세권·조예지, 1995; 김정자, 1984; 1988), 대부분의 편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다. 빈곤 편모세대 즉 국가에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요보호 편모가족은 1992년 전체 편모세대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 편모가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 이외에 그들은 심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과중한 역할부담과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어, 이에 따라 높은 우울, 불안감을 보고하고 있다(김영희,

1996). 더우기 편모가족은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지원의 양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열악한 양상은 편모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 지적도 있다(Price & Mckenry, 1988).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편모, 특히 빈곤층 편모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연구, 즉 가족의 지원체계와 적응기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편모가족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가족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편모가족내의 상호작용적이며 심리적인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신화용·조병은, 1996). 말하자면 빈곤층 편모를 대상으로 할 때 단지 그들의 다양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대처자원을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빈곤편모가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들에게 유용한 사회적 지원은 저조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빈곤편모가족의 대부분이 가족구조의 변화이전에도 이미 빈곤한 상태이며 친척들로부터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일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편모가 취업하고 있어 주변의 대인관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 또한 취약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편모가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타나는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황적 변수, 즉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지원의 효과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때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등 지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능력을 도와주는 중요한 대처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왔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완충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충효과 모델에 대한 경험적 확신을 갖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편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에 의해 어느정도 완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내의 선행연구들도 편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곤층 편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편모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사회적 지원의 독립적, 상호작용적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여, 편모가족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갖는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빈곤층 편모가 지각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의 경향은 어떠한가?

2. 편모의 심리적 적응은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과 관계가 있는가?

특히,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빈곤층 편모의 심리적 적응

그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을 주로 분리된 생활사건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들어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빈곤여성들이 겪는 긴장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내재된 만성적인 생활조건들로부터 유래된다고 주장하였다(Belle, 1982). 왜냐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하나의 부정적 생활사건보다 더욱 위협적이 되기 때문이다(Olson & Banyard, 199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으로 여러 실증연구들은(Belle, 1982; Berman & Turk, 1981) 경제적, 부모-자녀관계, 주위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는 저소득, 부적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소득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인데(Belle, 1982; Olson & Banyard, 1993),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편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공세권·조애저, 1995; 김정자, 1985, 1988; 백경희, 1987). 우리나라 대규모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편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로서 여성세대주가 교육수준이 낮아 공식적이며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하거나, 남편과 사별이나 이혼후 직업을 갖게 되는 제한된 직장경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주로 자녀와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데, 자녀 특히 남아아이가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Hetherington & Cox., 1978), 자녀양육의 패턴과 일상적 대화패턴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편모들은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 수준보다 자녀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 구체적으로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자녀를 돌볼 시간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한경혜, 1993).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만성적 스트레스 정도와 편모의 심리적 적응간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cLoyd, 1990; Simons, Beaman & Conger, 1993). Belle(1982)는 특히, 다른 계층보다 빈곤층 사람들이 만성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및 건강스트레스 정도가 빈곤여성의 우울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김인숙, 1994). 편모가족들도 소득이 적을수록, 또 배우자와 이별 후 자녀가 나쁘게 변화했다고 지각할수록 편모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그렇지만 빈곤층 편모들이 모든 형태의 스트레스에 일률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 즉, 그들이 동일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르게 반응하고, 평가하여 적응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Simons et al., 1993). 이때, 이러한 개인차는 편모의 처한 상황적 요인, 즉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처자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중요하게 부각된다(Bankoff, 1983; Holloway & Machida, 1991). 이는 스트레스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편모의 대처자원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 2. 사회적 지원과 빈곤층 편모의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의 적응능력을 돕는 중요한 대처자원으로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물리적 또는 심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Ladewig, McGee & Newell, 1990). 사회적 지원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세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김영희, 1996).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해 주는 등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및 충고 등의 정보적 지원(informational support) 및 관심표명, 상호간

의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는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원의 출처에 따라 유용한 지원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어, Gerstel(1988)에 의하면 친척은 영구적 혈연관계에 기초하므로 재정적 지원 등 장기적 유대를 요하는 도움에 적격이며, 친구 또는 이웃은 유사한 가치나 흥미를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줄 때 알맞다고 하였다.

편모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편모의 안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타인에게 자주 의존하게 되므로 사회적관계망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될 수 있다(Rhodes, Ebert & Meyersl, 1994). 예를 들어 Keith(1982, Kissman & Allen 1993에서 재인용)는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물질적 도움과 충고가 빈곤층 편모의 우울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편모가 친정부모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실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데(한경혜, 1993), 편모들이 친정부모로부터 경제적 문제, 거주지 문제, 직업구하기 등 도구적 지원과 외로울 때 함께 보내는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편모가족의 친족기능을 주로 친정으로부터의 애정적 지원을 받는 관계적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그러나 빈곤편모가족의 경우 친척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매우 저조하리라 짐작된다. 왜냐하면 빈곤편모가족의 대부분이 가족구조의 변화 이전에도 이미 빈곤한 상태이며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부분의 편모가 직업을 갖고 있어 친척과 접촉할 시간이 부족하는 등 친척관계가 상당히 위축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말하면 편모가족은 어떤 때보다 더욱 더 친척으로부터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친척에게서 받는 지원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메카니즘으로 주효과 및 완충효과와 두 가지 모델을 들 수 있다. 주효과 모델은 지원의 제공자체가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설로서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완충효

과 모델은 대처이론(coping theory)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데,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처과정에서 자원의 기능을 강조한다. 이 때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지원으로 개념화되고,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의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대처이론에서 적용되는 자원은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완충효과에 대한 가설은 도구적 기능, 정서적 기능 같은 사회적 지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미숙, 1996). 최근들어 Ladewig 와 McGee(1990)의 실증연구에서 완충효과 가설이 지지되어, 친척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원이 심리적 적용에 완충적 역할을 하는 증거를 보였다. 즉, 낮은 지원을 받는 빈곤층 여성보다 높은 지원을 받는 빈곤층 여성이 스트레스와 우울간 부정적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역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최근들어 노인의 정신건강과 가족 지원의 완충작용을 밝힌 연구(김윤정·최혜경, 1993; 이신숙, 1997)와 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적 지원의 완충적 역할을 증명한 연구(김인숙, 1994)등이 있을 뿐이다.

빈곤층 편모의 심리적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편모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취업 주부가 비취업 주부보다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나, 주부가 자발적이며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에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Kelly & Voydanoff, 1985). 빈곤층 편모의 경우 생계를 위해 취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취업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편모와 자녀간의 사회, 심리적 관계는 편모의 적용에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ongla와 Thomson(1987)의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가깝게 느낄 때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가족관계적 자원을 정서적 친밀감을 보여주는 애착과 편모가족이 된 후 자

녀의 변화 등으로 측정된 결과,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부정적 변화가 편모의 심리적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신화용·조병은, 1996). 따라서 편모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은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빈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생활 보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보건사회백서, 1993).

질문지 조사시 표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확률표집인 편의표집을 사용하였는데, 대전 시청 부녀복지과를 통하여 대전시 5개 구 총 300가구를 대상가구로 정하였다. 이외에, 대규모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 1곳을 선정하여 주변 사회복지관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본연구대상의 특성에 적합하고 접촉이 가능한 가구를 선정하였는데 60가구에 달했다. 동사무소 직원, 복지사 2명 및 연구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대상자로 하여금 개별면접에 의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360부 중 312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 기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285부(91.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자료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김영희의 박사논문(1996)을 참조할 것).

####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인 빈곤편모가족의 모집단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요보호 편모세대로 하였다. 조사지역을 대전으로 한정된 것은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편모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그들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93.3%로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9.9

세(표준편차=5.59)이다. 이들이 편모가 된 이유는 사별이 60.2%, 이혼 및 별거가 28.1%로 나타났다. 편모가 된 기간은 1-5년이 5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이 34.6%, 11-15년이 9.4% 순이며, 평균기간은 6.0년(표준편차=3.07)이다. 가족형태는 응답자의 84.2%가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확대가족인 경우 친정식구와의 동거가 시댁식구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2배가량 많았다. 편모의 자녀수는 2명 또는 3명이 전체의 85.7%를 보였으며, 평균 자녀수는 2.4명이다. 전체 응답자의 85.9%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직업종류는 노점상, 가게운영, 외판원, 미용사, 식당이나 병원 등의 청소부, 파출부, 회사원 등으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4종류의 질문지로, 이는 빈곤층 편모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들이다. 빈곤층 편모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Olson 과 Banyard(1993)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조사, 박미령(1991)의 도시 빈곤가구의 실태를 참조하였다.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환경을 서수적으로 점수화하였다. 총 15문항에 대하여 지난1년간 경험유무를 물어보아<sup>1)</sup> 경험이 없는 경우를 1점으로 처리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별로 괴롭지 않다'(2점), '약간 괴롭다'(3점), '많이 괴롭다'(4점), '극도로 괴롭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분 요인 분석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5문항), 주위환경 스트레스(3문항), 자녀관련 스트레스(3문항), 대인관계 스트레스(2문항) 및 건강스트레스(2문항)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86, .86, .86, .89이다.

빈곤층 편모가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은 김인숙(1994)이 조사한 빈곤여성 대상의 사회적 지원 문항을 참고로 경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각각에 관한 3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가족원, 친척(시가/친정),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도움받지 못한다'(1점), '약간 도움받는다'(2점), '많이 도움받는다'(3점)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다.

정신건강의 부적 측면을 나타내는 우울을 살펴보기 위하여 Zung(1965)의 자기평가우울 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20개 문항 중에서 편모에게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안면타당도를 통해 9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90이다. 편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전반적인 관계의 양호도를 편모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1 문항으로 물어보아 5 점척도로 구성하였다.

### 4. 분석방법

질문지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유형 및 사회적 지원의 유형, 지원원에 대하여 기술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우울감과의 관계 파악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때, 편모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스트레스 변수와 사회적 지원 변수와의 상호작용의 유의도에 의해 검증하고, 상호작용의 패턴을 그림을 통해 살펴 보았다.

1)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시점과 일정기간이후 시점에서 사회적 지원수준과 심리적 복지수준을 단계적으로 측정하는 종단적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이미숙, 1996) 그러나 횡단적 설계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변수간의 혼합효과를 통제하려는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스트레스 척도에 시간간격을 명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질문지 조사로 살펴본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표 1>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경향

요인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스트레스	3.10	0.92
자녀관련 스트레스	2.78	0.85
주위환경 스트레스	2.25	0.93
건강 스트레스	2.60	1.19
대인관계 스트레스	2.14	0.98
전체	2.57	0.95

응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경제적 스트레스(M=3.10)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관련 스트레스(M=2.78), 건강 스트레스(M=2.60), 주위환경 스트레스(M=2.25), 그리고 대인관계 스트레스(M=2.14)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내용으로 '자녀교육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생계비 어려움과 직업상 어려움 정도를 다음 순으로 나타내었다. 자녀관련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항목 중에서 '성적 저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등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자녀가 나쁜 친구를 사귀며 문제행동을 일으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빈곤편모가족이 경험하는 주위환경과 관

련된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서', '영구임대 거주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빈곤층 편모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낮은 정도(M=2.14)를 보였는데, 이는 편모들이 시간이 없어 친척 또는 친구 등과 왕래할 기회가 적은 탓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2. 빈곤층 편모의 사회적 지원

본 조사 대상자들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별 및 지원원별 전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빈곤층 편모들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의 양은 대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1.80, 범위=1~4), 응답자의 약 31%정도가 사회적 지원을 유형별로 거의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빈곤층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서울시에 거주하며 청소년 자녀를 둔 편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편모에게 유용한 사회적 지원이 저조하게 나타나(신화용·조병은,1996), 우리나라 편모가족을 위한 지원의 취약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유형별로 나타난 도움정도는 정서적 지원(M=1.98), 경제적 지원(M=1.86), 정보적 지원(M=1.85)순이었는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 시가쪽 친척으로부터 도움이 가장 적었으며, 친정으로부터 도움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편모가족의 경우 시가와 매개체인 남편의 부재로 인해 시가와 관계가 소원해지며, 친정으로부터 편중지원을 보인다는 신화용(1996)의 지적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표 2>에서 볼 때 대상자의 약 1/3정도가 정서적

<표 2> 사회적 지원의 유형별 및 지원원별 일반적 경향

요인	평균 (표준편차)	도움받지 않는 경우(%)	도움받는 경우의 지원원(%)						
			가족	시가	친정	친구	이웃	전문인	계
경제적 지원	1.86 (0.72)	101 (35.5)	13 (4.6)	8 (2.8)	81 (28.4)	39 (13.7)	35 (12.3)	8 (2.8)	285 (100.0)
정서적 지원	1.98 (0.69)	90 (31.6)	17 (6.0)	1 (0.4)	31 (10.9)	101 (35.4)	35 (12.1)	11 (3.7)	285 (100.0)
정보적 지원	1.85 (0.67)	78 (27.4)	30 (10.5)	12 (4.2)	59 (20.7)	50 (17.5)	15 (5.3)	41 (14.4)	285 (100.0)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의 제공은 친척보다는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이루어졌다. Holloway와 Machida(1991)는 친구로부터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Benin과 Keith(1995)는 친척들과 왕래거리가 먼 편모들에게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보적 지원은 응답자의 약 27%가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는 경우 친정이나 친구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자녀의 학업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으로부터 얻는 빈도가 경제적 또는 정서적 지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근처 복지관의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 3.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역할

빈곤층 편모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울감의 수준은 평균 2.12점(표준편차=0.52, 범위 1점-4점)으로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때때로 우울을 느끼는 상태에 해당된다. 이러한 우울정도가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원과 빈곤층 편모의 우울정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원을 지원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않는 경우의 두 집단으로 양분하여<sup>2)</sup>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지원유형에 따라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을 제공받는 집단이 받지 않는 집단보다 우울감이 낮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원이 유형별로 빈곤층 편모의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편모들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이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표 3> 사회적 지원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우울		
	평균	표준 편차	F값
경제적 지원			6.51*
받을 때 (N=179)	2.06	0.57	
받지않을 때 (N=88)	2.25	0.58	
정서적 지원			4.73*
받을 때 (N=200)	2.07	0.56	
받지않을 때 (N=64)	2.26	0.60	
정보적 지원			4.46*
받을 때 (N=185)	2.06	0.57	
받지않을 때 (N=81)	2.23	0.59	

\* : p<.05

사회적 지원이 유형별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 1) 경제적 지원의 역할

<표 4>에 의하면 빈곤층 편모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취업여부( $\beta=-0.17$ ), 자녀와의 관계( $\beta=-0.16$ ), 스트레스( $\beta=0.37$ )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즉, 편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 자녀와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편모의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경제적 지원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제적 지원은 우울감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와 경제적 지원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전체 우울감의 변량 32%를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경제적 지원은 편모의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정서적 지원의 역할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원은 유의한 부정적 영향( $\beta=-0.50$ )을 미쳐, 정서적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편모의 우울 정도는 감소된다. 또한 정서적 지원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10%

2) 사회적 지원은 당초 '많이 받는다', '약간 받는다', 그리고 '거의 받지 않는다'로 구분되어 있으나, 설문결과 '많이 받는다'의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약간 받는다'와 지원을 받는 경우로 통합한다.

<표 4>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의 역할

독립변수	우울감	
	b	$\beta$
교육수준	-0.29	-0.06
취업여부(비취업=0)	-2.68	-0.17**
자녀와 관계	-1.06	-0.17*
스트레스	0.19	0.37**
경제적 지원	-3.11	-0.27
스트레스 × 경제적 지원	0.04	0.16
상수	13.42	
$R^2$	0.32	
F값	17.71***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표 5>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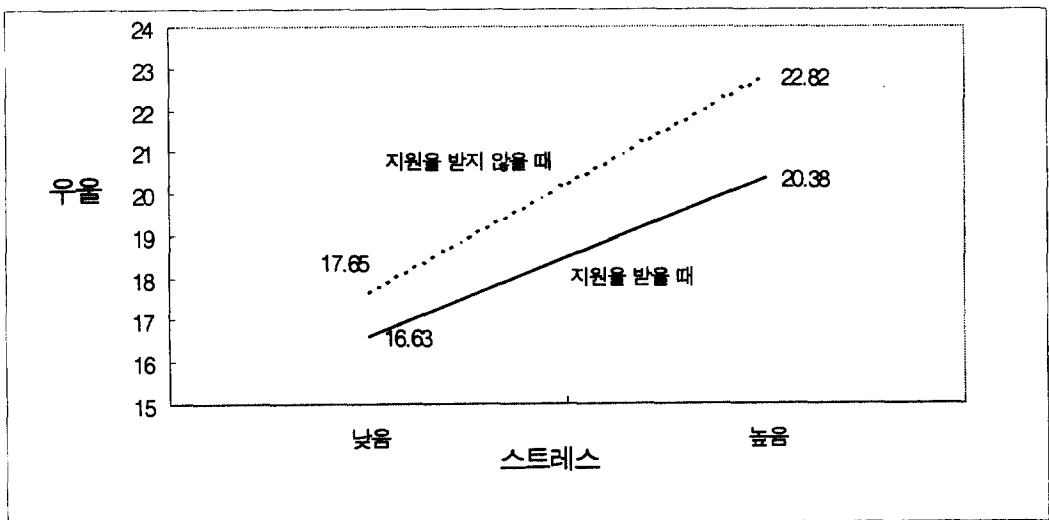
독립변수	우울증	
	b	$\beta$
교육수준	-0.24	-0.05
취업여부(비취업=0)	-2.64	-0.17**
자녀와 관계	-1.00	-0.15**
스트레스	0.15	0.28*
정서적 지원	-6.21	-0.50*
스트레스 × 정서적 지원	0.12	0.42 <sup>†</sup>
상수	15.36	
$R^2$	0.33	
F값	117.72***	

<sup>†</sup> :  $p < 0.1$  ,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의 증감값을 기준으로 도움받는 집단과 도움 받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3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정서적 지원의 완충효과는 <그림 1>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차이로 나타나며, 두 직선의 기울기는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우울의 증가를 나

타낸다. 정서적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편모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정도가 큰폭으로 증가하지만(17.65--22.82),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는 편모는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우울정도가 낮은 폭으로 증가하는(16.63--20.38)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손상 효과를 완화한다는 완충효과로서 해석된다.



<그림 1> 편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완충효과



## 3) 정보적 지원의 역할

<표 6>에 의하면 빈곤층 편모가 제공받는 정보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영향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정보적 지원의 역할

독립변수	우울감	
	b	$\beta$
교육수준	-0.26	-0.05
취업여부(비취업=0)	-2.68	-0.17**
자녀와 관계	-1.10	-0.16**
스트레스	0.29	0.55***
정보적 지원	1.37	0.12
스트레스 × 정보적 지원 상수	-0.06	-0.25
R <sup>2</sup>	0.33	
F값	18.44***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원 중 정서적 지원만이 빈곤층 편모의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강하게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주로 정서적 지원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심한 빈곤층 편모에 대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울의 감소 혹은 악화 방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빈곤층 편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편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원이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빈곤층 편모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편모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문제, 건강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모들의 정신적 건강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하에서 빈곤층 편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상태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 등 정책적 방안이 요망된다.

둘째, 사회적 지원의 여러 유형 중에서 정서적 지원이 빈곤층 편모의 우울과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더불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빈곤층 편모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수준과 상관없이 정서적 지원이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충분한 정서적 지원이 주어지면 편모의 우울감의 악화를 막거나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서적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보건대 사회적 지원의 여러 유형 중 빈곤층 편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편모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편모의 주변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개발하며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편모세대로 이루어진 자조집단, 재혼상담 등을 구성하여 비슷한 문제, 어려움의 경험 등에 관하여 정서적 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편모들이 자조집단 안에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갖게 함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원 중 경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은 편모들의 심리적 적응에 독립적 영향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 편모가 이러한 지원을 거의 제

공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된다고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정보적 지원의 부족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살펴보면 많은 편모들이 정보적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거나, 직업역할로 인해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할 때 각 유형별로 1 문항씩 선정한 것이 척도의 적합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 미래 연구에서는 신뢰성 및 타당성이 높은 척도 사용이 요구되며 앞으로 표준화된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울감을 측정할 결과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편모가 안고 있는 우울 정도가 만성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여 응답자의 응답이 일관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설문지 조사가 응답자의 우울감 등을 끌어내기에는 적당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편모들과 레포(rapport)가 조성된 후 이루어진 심층면접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사회적 지원의 긍정적 측면 뿐만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른 문제점이 함께 고찰되어야겠다. 서구의 연구들은 물질적, 도구적 지원에 많이 의존될 때 사회적 관계의 문제점이 생길 것이며(Belle, 1982), 따라서 지원망이 비판, 간섭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Rhodes, 1994)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심리적 적응을 우울감의 부정적인 면만을 측정하였는데, 미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적응 즉, 우울감, 불안 등의 부정적 측면 뿐만아니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등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 편모의 적응 및 지원체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편모들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우울을 느끼는지,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편모의 사회적 지원망의 속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탐색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편모가족의 지원체계가 구체적으로 개발될 것이라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공세권, 조애저(1995). 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정, 최혜경(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 13권 2호, 63-83.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정자(1985).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봄, 30-78.
-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가을.
- 백경희(1987). 빈곤모자가족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제 8집, 57-76.
- 이미숙(1996).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효과: 주효과와 완충효과의 검증을 위한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 한국사회학, 제 30집, 449-472.
- 이신숙(1997). 노인이 경험하는 긴장상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5(4), 199-209.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41-71.
- 한경혜(1993).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79-104.
- 한국가족관계학회(1996).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1996 가정복지세미나자료, 5-31.
- Bankoff, E. A. (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827-839.
- Belle, D. (1982). *Lives in Stress: Women & Depression*. Beverly Hills, CA: Sage. 133-178.
- Benin, M., & Keith, V. M. (1995). The social support of employed African American and Anglo mothers. *J. of Family Issues*, 16(3), 275-297
- Berman, W. H., & Turk D. C. (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 coping strateg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 Buehler, C., & Legg, B. H. (1993). Mother's receipt of social support and their well-being following marital separation. *J. of Social Personal Relationships*, 10, 21-38.
- Colletta, N. D. (1979). Support system after divorce: Incidence and impac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37-846.
- Gerstel, N. (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209-219.
- Gongla, P., & Thompson, E. (1987). Single-parent families. In Sussman & 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397-625). New York: Plenum press.
- Gottlieb, A. S. (1997). Single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mily Relations*, 46, 5-12.
- Gove, W. R., & Shin, H. (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 women. *J.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Holloway, S., & Machida, S. (1991). Child-rearing effectiveness of divorced mothers: Relationship to coping strategies & social support. *J. of Divorce*, 14, 179-201.
- Jayakody, R., Chatters, L., & Taylor, R. (1993). Family support to single and married African American mothers: The provision of financial, emotional & child care assistan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61-276.
- Kissman, K., & Allen, J. A. (1993). *Single-Parent Families*. Newbury Park: Sage.
- Ladewig, B. H., McGee G., & Newell, W. (1990). Life strains and depressive affect among women. *J. of Family Issues*, 11(1), 36-47.
- LaRossa, R. (1984). Family Case Studies -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Press Press. 188-222.
- Lawson, E. J., & Thompson, A. (1996). Black men's perceptions of divorce-related stressors and strategic for coping with divorce. *J. of Family Issues*, 17(2), 249-273.
- Makosky, V. P. (1982). Sources of stress: Event or conditions? In D. Belle (Ed), *Lives in stress: Woman and Depression*(pp. 35-53). Beverly Hills, CA: Sage.
- McCubin, H.,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 7-37.
- McLanahan, S., Wedemeyer, N., & Adelberg, T. (1981). Network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parent fami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601-612.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Olson, S. L., & Banyard, V. (1993). Stop the world so I can get off for a while- Sources of daily stress in the liv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of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42, 50-56.
- Pitman, J., & Lloyd, S. (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stres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3-61.

- Price, S. J., & Mckenry, P. C. (1988). *Divorce*. Newbury Park: Sage.
- Rhodes, J. E., Ebert, L., & Meyers, A. B. (1994). Social support, relationship problems and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young African - American mothers. *J.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587-599.
- Rubin, L. B. (1976). *Worlds of Pain: Life in the Working-class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Simons, R., Beaman, J., & Conger, R.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Spicer, J. W., & Hample, G. D. (1975). Kinship interaction after divor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113-119.
- Turner, R. J., & Avison, W. R. (1985). Assessing risk factors for problem parenting: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81-892.
- Zastowny, T. R., & Lewis, J. L. (1989). Family interactional patterns and social support system in single-parent families. *J. of Divorce*, 13(2), 1-40.